

명분을 바로세우다(正名)!

子路曰衛君待子而爲政, 子將奚先? 子曰必也正名乎.
 子路曰有是哉? 子之迂也! 奚其正? 子曰野哉, 由也!
 君子於其所不知, 蓋闕如也.
 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 事不成則禮樂不如. 禮樂不如
 則刑罰不中, 刑罰不中則民無所持手足. 故君子名之必可言也.
 言之必可行也, 君子於其言, 無所苟而已矣. 『論語』, 〈子路篇〉

자로왈 위군대자이위정, 자장해선? 자왈 필야정명호.
 자로왈 유시재? 자지우야! 해기정? 자왈 야재, 유야!
 군자어기소부지, 개궐여야.
 명부정 즉언불순, 언불순 즉사불성, 사불성 즉예악불여. 예악불여
 즉형벌부중, 형벌부중 즉민무소지수족. 고군자명지필가언야.
 언지필가행야, 군자어기언, 무소구이이의. 『논어』, 〈자로 편〉

자로가 여쭈었다. “우나라 임금이 선생님께 의지하여 정치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반드시 명분을 바로 세우겠다.” 자로가 여쭈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사정에 밝지 못하십니다! 어째서 그걸 바로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련되지 못하구나, 너 유(由)는! 군자는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는, 말 않고 버려두는 법이다.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곧 말이 순리(順理)하지 못하게 되고, 말이 순리하지 않으면 곧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경조

前 코오롱그룹 부회장
前 코오롱건설 부회장

저자(著者)는 코오롱건설 CEO로 재임하던 1990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한국건설경영협회에서 회원사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협회의 회원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저서(著書)로는 오랜기간 CEO로 재직한 경험을 담은 『논어 경영학』(2009년, 청림출판)이 있다.

곧 예악(禮樂)이 흉성하지 못하게 되고, 예악(禮樂)이 흉성하지 않으면 곧 형벌이 적정하지 않게 되며, 형벌이 적정하지 않으면 곧 백성들은 손발을 제대로 둘 곳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명분을 세우면 반드시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말로 설명하면 반드시 실행될 수가 있는 것이다. 군자는 그의 말에 있어서 구차한 일이 없어야만 하는 것이다.

* 待(대) : 기다리다, 의지하다.

* 奚先(해선) : 무엇을 가장 먼저 시행하겠는가?

* 正名(정명) : 사물(事物)의 이름을 바로 세우겠다. 명분을 바로 세우겠다.

* 遷(우) : 우월(迂遠)한 것, 사정에 밝지 못한 것.

* 野(야) : 야하다, 세련되지 못한 것.

* 顧如(궐여) : 비어 두는 것, 말 않고 버려 두는 것.

* 順(순) : 순리(順理), 논리가 순조로운 것.

* 中(중) : 들어맞다. 적정하다.

* 措(조) : 놓다, 두다.

* 苛(구) : 구차하게 하는 것.

여기서 정명(正名)이란 무엇인가? 흔히 명분을 바로 세운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그뜻은 ‘이름과 실제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명실상부(名實相符)의 진정한 뜻이 바로 정명(正名)이다. <안연 편, 11장>에서 “임금은 임급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臣臣父父子子)”고 정치의 기본 도리를 설명했던 것과 같은 뜻이 된다. 모든 사람이나 사물이 명분대로 움직이고 명분에 맞게 존재한다면 모든 일이 제대로 될 것이다. 또한 <안연 편 17장>에서 “정(政)이란 정(正)의 뜻이다.(政者正也.)”라고 말한 경지도 “명분을 사로 세우는 데”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떠한가? 과연 명분이 제대로 일치하고 있을까? 나라를 다스려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겠다고

나선 정치인들은 저마다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진정한 정치의 목적을 망각한 채,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그들 정치인들을 추종하는 분들 역시 훌륭한 국정(國政) 수행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판에서의 입신양명(立身揚名)에 혈안이 되었다. 심지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도 국민의 행복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적 색깔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가 아닌가?

각자 해야 할 일은 제쳐두고 혜매던 춘추시대의 명분 없는 사회를 비판한 공자의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국민 각자 자기 직분에 맞는 역할에 충실히으로써 사회가 더 발전되고 밝은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